

보도 일시	2023. 2. 20.(월) 12:00	배포 일시	2023. 2. 20.(월) 8:30
담당 부서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책임자	실장 최바울 (042-366-7301)
		담당자	사무관 심수진 (042-366-7315)

##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발간

- 71개 지표의 시계열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 삶의 질 현황 제시 -

< 국민 삶의 질 지표 상황판 ('22년 12월 기준) >

● : 개선(52개), ● : 악화(18개), ● : 동일(1개)



주. 1)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나, 지표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22년 1월 공표된 고용률, 실업률, 미세먼지농도 지표를 반영된 결과로, 기존의 '22년 4분기 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2) \* 표시된 지표는 2년 이상 주기 지표로 '22년에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21년 12월 기준과 동일

※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는 통계개발원 홈페이지(<http://sri.kostat.go.kr>)에, 개별 지표 값은 지표누리 홈페이지(<http://www.index.go.kr>)에 게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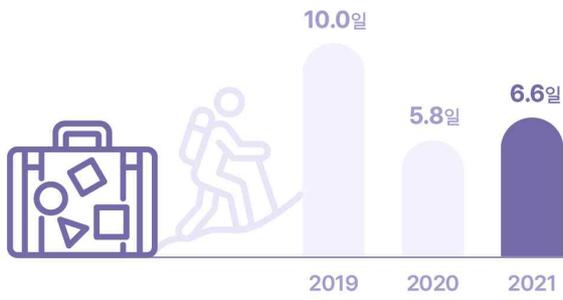
- 통계개발원에서는 국민의 삶을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연간 통계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인 삶의 질을 제시하며,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삶의 질 변화를 진단할 수 있다.
- 국민 삶의 질 지표는 Beyond GDP의 일환으로 GDP 중심인 경제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질적인 측면의 사회 발전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 21세기 들어 ‘삶의 질’과 ‘사회 발전’ 측정에 대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Beyond GDP 지표들이 작성되고 있다.
    - \* (국제기구) OECD Better Life Index, UN SDSN World Happiness Report
    - \* (단위국가)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등 국가 단위의 웰빙 또는 삶의 질 지표 작성
-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우리 사회의 삶의 질 측정을 통해 시계열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작성되었다.
  - 건강, 여가, 가족·공동체 등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되며,
    - \* 기존 통계자료(행정자료 21개, 조사자료 50개)로 작성되어 지표별로 출처가 다양
  - 보고서에서는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71개 지표가 전기대비 개선 또는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 삶의 질을 보여준다.

※ 지표작성 시점('22년 12월 말)에 따른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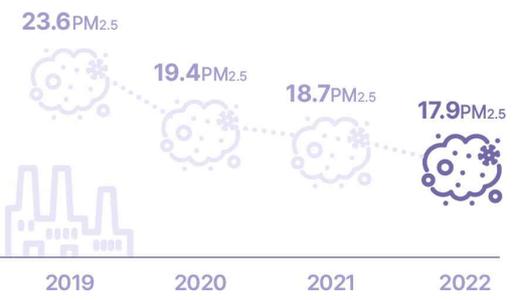
- '22년 12월 말 기준 공표된 통계로 작성되어, 지표별로 활용된 자료의 시점이 서로 상이함

-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슈분석으로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질적연구 결과를 통해 아동·청소년 및 청년이 생각하는 삶과 행복에 대한 다차원적 시각을 파악하고 이들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아동 청소년이 이야기하는 자신들의 행복한 삶’(유민상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청년의 목소리: 삶의 질에 대한 FGI 결과’(우한수 사무관, 통계개발원)
- 송준혁 통계개발원장은 “국민 삶의 질 보고서가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초석으로써 우리 사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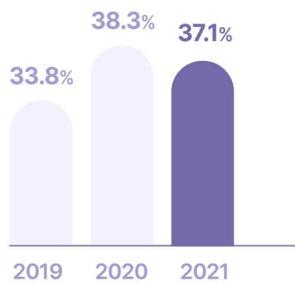
1인당 국내관광여행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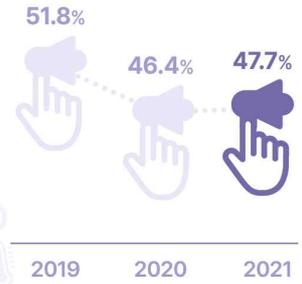
미세먼지 농도(PM<sub>2.5</sub>)



비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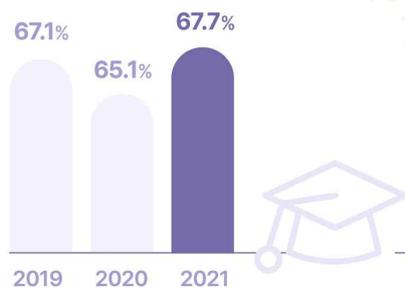


사회단체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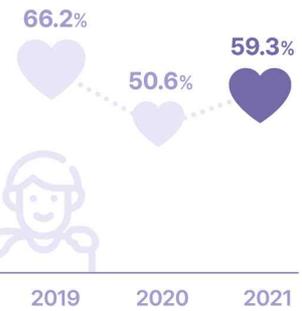


# 코로나19와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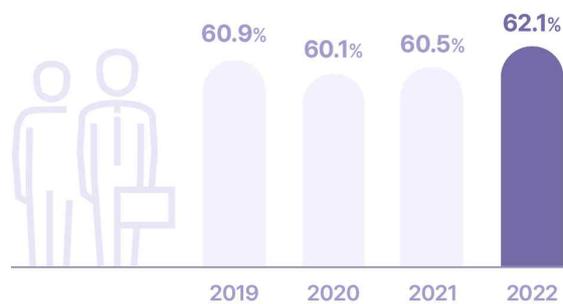
대학졸업자 취업률



대인신뢰도



고용률



아동학대피해 경험률 (10만 명당)



# 「국민 삶의 질 2022」 주요 결과

## 1. 전체 요약

업데이트 된 62개 지표 중 전기대비 개선지표 47개, 악화지표 14개

- 전체 71개 지표 중 '22년에 업데이트 된 지표는 62개이며, 전기대비 개선지표 47개, 악화지표 14개, 동일지표는 1개임('22년 12월 말 기준)
  - ('22년 수치 반영) 20개 지표 중 개선 16개, 악화 4개로, 고용이나 가족, 건강, 세부 환경영역별 만족도는 개선\*된 반면, 독거노인 비율, 선거투표율, 학교 생활만족도, 기후변화불안도 등 4개 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 개선지표(16개) : 고용률, 실업률, 미세먼지농도, 가족관계만족도, 스트레스인지율,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활동실천율, 교육비부담도, 학교교육효과, 대기질만족도, 수질만족도, 토양환경만족도, 소음만족도, 녹지환경만족도, 야간보행안전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 ('21년 수치 반영) 41개 지표 중 전기대비 개선이 31개, 악화가 9개로 개선 지표의 비율이 75.6%임
    - 사회단체참여율, 비만율, 1인당 여행일수 등은 '20년 대비 소폭으로 개선됨
    - 자살률, 근로시간, 가구부채비율, 문화여가지출률, 자가점유가구비율, 범죄피해율, 아동학대피해, 부정정서 등은 전기대비 악화됨

### < 업데이트된 62개 지표의 작성연도별 전기대비 개선/악화 현황 >

	계	개선	악화	동일
'20년 통계 자료	1 (100%)		1 (100.0%)	
'21년 통계 자료	41 (100%)	31 (75.6%)	9 (22.0%)	1 (2.4%)
'22년 통계 자료	20 (100%)	16 (80.0%)	4 (20.0%)	
전체	62 (100%)	47 (75.8%)	14 (22.6%)	1 (1.6%)

주: 지표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22년 1월 공표된 '22년 고용률, 실업률, 미세먼지농도는 반영함

※ 지표별로 작성주기\*와 공표시점\*\*이 상이하여 '22년에 업데이트된 지표는 전체 71개 지표 중 62개이며, 이 중 '22년 수치가 반영된 지표는 20개이고, 41개가 '21년 값임

\* 71개 지표의 작성주기: 1년주기(45개), 2년주기(23개), 3년주기 이상(3개)

\*\* 71개 지표의 작성연도('22년 12월 기준: '22년(20개), '21년(48개), '20~'19년(3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악화되었던 사회단체 참여율, 1인당 여행일수, 비만율, 고용률 등의 지표들이 '21~22년을 지나며 소폭으로 회복되는 추세

- 영역별로 보면 환경, 교육, 고용·임금, 건강, 소득·소비·자산 영역 등은 개선 지표가 많고, 여가, 주거, 가족·공동체 영역은 악화지표가 많음
  - 71개 지표 추세 : 개선 52개(73.2%), 악화 18개(25.4%), 동일 1개(1.4%)
- 최근 지표의 변화추세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코로나19 시기에 악화되었던 지표들이 소폭으로 개선 추세를 보임
    - 비만율, 1인당 여행일수, 대인신뢰도, 사회단체 참여율 지표는 '20년의 급격한 악화 이후 '21년 소폭으로 개선되었으나 기존 추세에는 못 미침
      - \* '19~'21년: 비만율(33.8%→38.3%→37.1%), 1인당 여행일수(10.01일 → 5.81일 → 6.58일)
      - 대인신뢰도(66.2%→50.6%→59.3%), 사회단체 참여율(51.8%→46.4%→47.7%)
    - 고용률과 실업률은 '22년에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개선된 수치를 보임
      - \* '19~'22년: 고용률(60.9%→60.1%→60.5%→62.1%), 실업률(3.8%→4.0%→3.7%→2.9%)
  - 미세먼지 농도, 환경영역별 만족도는 '20년 이후 지속적인 개선 추세
- 2010년 이후 중장기적인 변화 추이
  - (지속 개선) 건강상태, 교육수준 관련 지표와 가구소득, 주거 및 환경 등 기반시설 관련 지표, 안전 관련 지표는 개선추이를 보임
  - (지속 악화) 독거노인비율, 비만율, 가계부채비율, 아동학대피해 경험률
  - (주관지표) 주관적인 영역별 만족도 지표들은 객관지표에 비해 일관된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주관적 웰빙 영역 지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음



## 2. 국제비교 지표를 통해 본 한국의 삶의 질

한국은 객관적 지표는 상위권이나, 주관적(질적) 지표의 순위는 낮은 편

- 국가간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로는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BLI)’, UN SDSN ‘세계행복보고서(WHR)’, UNDP ‘인간개발지수(HDI)’가 대표적임
  - ‘국민 삶의 질 지표’는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시계열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목적으로 많은 지표가 활용되는 반면, 국제비교 목적의 지표는 나라간 비교가 용이한 비교적 간단한 지표로 구성됨
    - OECD BLI는 11개 영역의 24개 지표로 구성(붙임 참고)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각 나라의 지표 및 영역별 순위와 전체 순위를 제시
    - UN SDSN의 세계행복보고서는 ‘삶에 대한 평가’ 단일항목으로 구성
    - UNDP HDI는 4개(기대수명, 기대교육연수, 평균교육연수, 1인당 GNI)의 지표로 작성
- 국제비교 지표를 통해 최근 한국의 결과를 보면,
  - 주관/객관을 혼용하는 BLI는 OECD 국가 중 중하위권(32/41),
    - 11개 영역 중 시민참여(2위), 주거(7위), 교육(11위)은 상위권이나, 건강(37위), 공동체(38위), 환경(38위) 등의 영역은 낮은 편임
  - 주관지표만을 다루는 WHR에서는 낮은 수준(세계 59/146, OECD 36/38)이며,
    - 행복과 관련된 6개 요인 중 건강기대수명(3위), 1인당 GDP(26위)는 상위권이나, 부패(44위), 관용(54위), 사회적 지원(85위), 자율성(112위)은 중하위권
  - 객관지표만으로 구성된 HDI에서 좋은 평가(19/188)를 받고 있음

### <국제비교 지표로 본 최근 한국의 삶의 질 >

		더 나은삶지수 (BLI)	세계행복보고서 (WHR)	인간개발지수 (HDI)
세계 평균		-	5.55	0.73
OECD		-	6.67	0.90
한국		-	5.94	0.93
한국 순위	세계	-	59/146	19/188
	OECD	32/41	36/38	16/38

주: 1) BLI는 OECD 회원국 38개국 이외에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하며, 이를 제외해도 순위는 동일

2) 세계행복보고서는 삶에 대한 평가를 측정한 값으로 0~10점 척도 평균값임('19~'21년 평균)

출처: UNDP(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SDSN(2022), *World Happiness Report 2022*; OECD BLI 홈페이지(<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 2023년 1월 인출)

### 3. 영역별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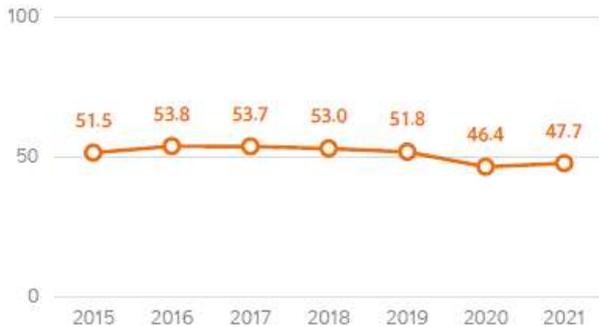
#### 가. 가족.공동체 영역

사회단체 참여율은 '21년 47.7%로 소폭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음

- 사회단체 참여율은 코로나19로 인해 '20년 46.4%로 감소(19년 대비 -5.4%p)한 이후 '21년 47.7%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50% 미만임(보고서 24쪽)
  - (성별) 남자의 사회단체 참여율이 여자보다 4.7%p 높고,
  - (연령별) 40대가 49.2%로 가장 높지만,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비슷한 수준

< 사회단체 참여율 (2015~2021년) >

(단위: %)



< 성.연령별 사회단체 참여율 (2021년) >

(단위: %)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19~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2) 9개 사회단체 중 하나의 단체라도 '소속되어 가끔 활동' 또는 '적극적으로 활동'한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사회단체별로 보면 '21년 동창회/향우회(28.8%)의 참여율이 가장 높으나, 코로나19 이후 참여율의 증가가 다른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대부분의 사회단체 참여율이 '20년에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한 반면, 종교단체의 경우 '19~'21년 사이 참여율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세부항목별 사회단체 참여율 (2019~2021년) >

(단위: %)

	동창회/향우회	동호회	종교단체	지역사회모임	자원봉사기부단체	노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	시민단체	정당
2019	33.2	20.2	13.8	8.3	8.4	4.3	3.1	3.2	1.9
2020	28.4	16.0	14.7	8.9	6.0	2.8	2.6	2.3	2.0
2021	28.8	19.5	14.7	10.5	7.8	7.4	7.0	6.5	8.0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19~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2) 각 단체에 '소속되어 가끔 활동' 또는 '적극적으로 활동'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통합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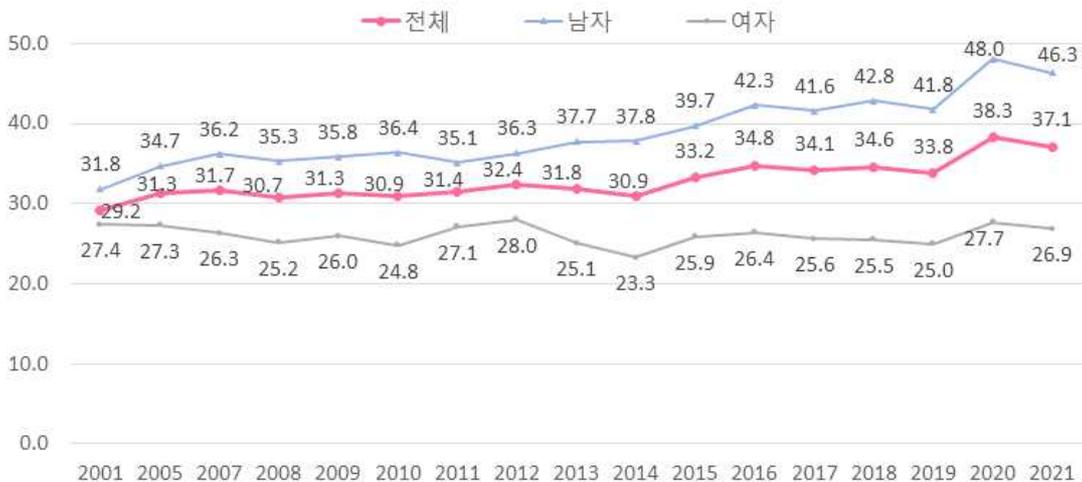
## 나. 건강 영역

비만율은 '21년 37.1%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음

- '21년 비만율은 37.1%로 '20년(38.3%)보다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의 35% 미만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임(보고서 33쪽)
  - '20~'21년의 높은 비만율은 코로나19 시기의 재택근무와 원격학습, 외부 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활동량 감소가 비만율 증가로 나타났을 수 있음
  - 남자의 비만율은 '01년 이후 증가추세이며, '20년에는 48.0%로 전년대비('19년 41.8%) 급증했으나, '21년 46.3%로 1.7%p 감소함
  - 반면, 여자의 비만율은 '01년(27.4%)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20년 27.7%로 증가하였으며, '21년 26.9%로 감소함

< 비만율 (2001~2021년) >

(단위: %)



주: 1)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한 수치임  
2) 비만율은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임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 (연령) 40대의 비만율(42.9%)이 가장 높고, 다른 연령대의 경우 '20년 대비 감소한 반면, 40대는 '21년에도 비만율의 증가를 보임

< 연령별 비만율 (2020년, 2021년) >

(단위: %)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0년	32.6	41.6	39.0	40.2	41.1	35.3
2021년	28.6	39.4	42.9	36.8	40.6	33.5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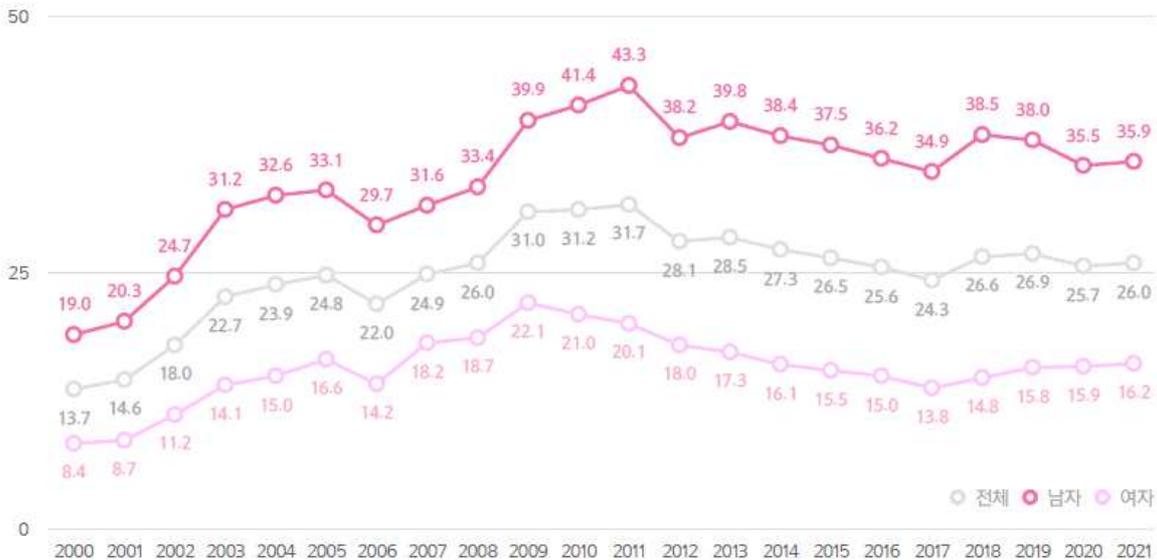
◇ 자살률은 '21년 인구 10만 명당 26.0명으로 전년대비 0.3명 증가

□ 자살률은 '00년 인구 10만 명당 13.7명에서 '11년 31.7명으로 증가한 이후 감소추세였으나, '17년 이후 소폭으로 증가추세(보고서 34~35쪽)

- (성별) 남자에 비해 여자의 자살률이 절반 가량 낮은 수준으로, '21년 남자는 35.9명, 여자는 16.2명으로 남녀 모두 '20년보다 증가
  - '17년 이후 여자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임
- (연령별)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으나, 최근에는 40세 이상의 자살률은 감소추세인 반면, 10~20대 자살률의 증가가 두드러짐
  - 남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높으나, 여자는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20~30대에서 자살률이 높게 나타남

< 자살률 (2000~2021년) >

(단위: 명/10만 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성 및 연령별 자살률 (2019~2021년) >

(단위: 명/10만 명)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19	5.9	19.2	26.9	31.0	33.3	33.7	53.3
2020	6.5	21.7	27.1	29.2	30.5	30.1	47.0
2021	7.1	23.5	27.3	28.2	30.1	28.4	48.7
남자	7.3	27.1	33.4	38.9	<b>43.6</b>	<b>44.3</b>	<b>81.8</b>
여자	6.9	<b>19.6</b>	<b>20.7</b>	17.1	16.3	13.1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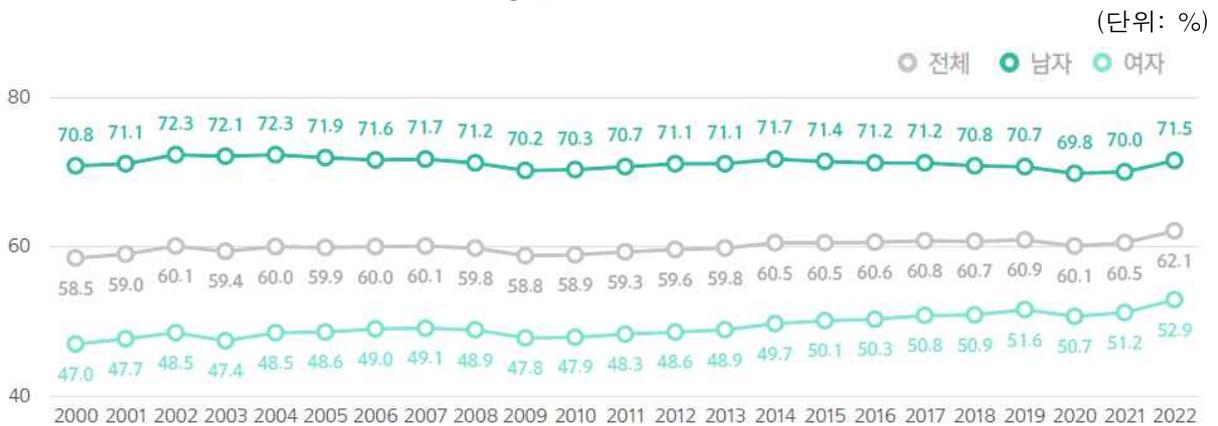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다. 교육 및 고용·임금 영역

고용률은 '20년 60.1% → '21년 60.5% → '22년 62.1%로 증가하였고, 대학졸업자 취업률도 '20년 65.1% → '21년 67.7% 로 증가

- '22년 고용률은 62.1%로 전년대비 1.6%p 증가하여, '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보고서 50~51쪽)
  - 고용률은 '00년 58.5%에서 60% 전후로 증감을 반복하다 '14년 60.5%에서 '19년 60.9%로 증가하다 '20년 60.1%로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함
  - (성별) '22년 기준 남자 71.5%, 여자 52.9%로 남녀 모두 전년보다 증가

< 고용률 (2000~2022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대학졸업자 취업률 또한 '21년 67.7%로 전년대비 2.6%p 증가(보고서 43쪽)
  -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20년 65.1%로 '19년보다 2.0%p 감소하였으나, '21년에 다시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19년 67.1%)의 수치로 회복함

< 대학졸업자 취업률 (2011~2021년) >

(단위: %)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대학졸업자 취업률	67.6	67.4	67.5	66.2	67.1	65.1	67.7

주: 1) 고등교육기관에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이 포함됨  
 2) 취업률은 건강보험 및 국세DB를 연계하여 산출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 라. 여가 영역

1인당 국내여행일수는 '21년 6.58일로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음

- 1인당 여행일수(국내)는 '21년 6.58일로 '20년(5.81일) 대비 소폭으로 증가 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인 10.01일('19년)에는 못 미침(보고서 73쪽)
  - (연령별) 전체 연령대에서 '20년보다 여행일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9세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7.58일 → 8.72일, 1.14일 증가)

< 연령별 1인당 국내 관광여행일수 (2019~2021년) >

(단위: 일)

	전체	연령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19년	10.01	7.72	11.51	12.10	10.89	10.55	8.15	6.08
2020년	5.81	3.32	7.58	8.21	6.93	5.81	4.20	1.77
2021년	6.58	3.82	8.72	9.07	7.81	6.78	4.91	1.92

주: 관광여행은 행정구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을 다녀온 모든 여행 중 관광, 자연감상 등 여가.위락, 휴가 목적의 여행을 의미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 국내여행 경험률은 '21년 89.0%로 '20년(75.5%)보다 13.5%p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임
  - \* 국내 관광여행 경험률: '18년 84.0%, '19년 85.0%, '20년 75.5%, '21년 89.0%
  - 이러한 여행경험률의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제한됨에 따라 국내여행이 증가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 여가시간은 '21년 4.4시간으로 '16년 3.6시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보고서 70쪽)
  - (연령별) 여가시간은 70대 이상에서 5.7시간으로 가장 길고, 상대적으로 30~40대에서 짧은 편으로 '21년에는 40대의 여가시간(3.9시간)이 가장 짧음

< 연령별 여가시간 (2020년, 2021년) >

(단위: 시간/일)

	전체	연령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0년	4.2	4.0	4.4	3.7	3.8	3.9	4.5	5.6
2021년	4.4	4.1	4.5	4.1	3.9	4.2	4.6	5.7

주: 요일평균 여가시간 = {(평일 여가시간 × 5일) + (휴일 여가시간 × 2일)} ÷ 7일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 마. 환경 영역

미세먼지 농도(PM<sub>2.5</sub>)는 '22년 17.9 $\mu\text{g}/\text{m}^3$ 로 '2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 '22년 미세먼지 농도는 17.9 $\mu\text{g}/\text{m}^3$ 로 '21년보다 0.8 $\mu\text{g}/\text{m}^3$  감소(보고서 86-87쪽)
  - 17개 시도의 인구 가중평균한 미세먼지 농도(PM<sub>2.5</sub>)는 '15년 26.1 $\mu\text{g}/\text{m}^3$ 에서 '19년(23.6 $\mu\text{g}/\text{m}^3$ )을 제외하고 감소 추세로, 특히 '20년에 감소폭이 두드러짐

< 미세먼지 농도 (2015~2022년) >

(단위:  $\mu\text{g}/\text{m}^3$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미세먼지 농도(PM <sub>2.5</sub> )	26.1	26.0	25.0	23.2	23.6	19.4	18.7	17.9

주: 17개 시도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인구 가중한 평균값임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 17개 시도별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해보면, 경기, 충남, 충북, 전북, 인천에서 19~20 $\mu\text{g}/\text{m}^3$ 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전남, 제주 지역은 14 $\mu\text{g}/\text{m}^3$ 로 가장 낮음
  - '22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36 $\mu\text{g}/\text{m}^3$ ~)을 기록한 날은 경기가 40일로 가장 많으며, 서울, 인천, 세종, 충북, 충남이 30일 이상으로 많은 편임

<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PM<sub>2.5</sub>) 및 나쁨일수 (2022년) >



주: 나쁨일수는 일년동안 PM<sub>2.5</sub> '나쁨(36~75)'과 '매우 나쁨(75~)' 일수를 합한 값임.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 바. 안전 영역

아동학대피해 경험률은 '21년 10만명당 502.2건으로 전년대비 급격히 증가

□ 아동학대피해 경험률은 '21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502.2건으로 '20년(401.6건) 보다 약 100여 건 증가(보고서 106쪽)

○ 아동학대피해 경험률\*은 '01년 10만 명당 17.7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아동학대 피해 신고건수로 집계되고 있어 실제 학대건수가 증가한 것인지, 신고건수의 증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언론보도 이후 사회적 관심 증가

○ '13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인 이후 '21년 전년대비 가장 크게 증가

< 아동학대피해 경험률 (2001~2021년) >



주: 1) 아동학대피해 경험률 = (18세 미만 아동학대 사례건수 ÷ 18세 미만 추계인구) × 100

2)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최종 학대 판단건수임

출처: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반면, 아동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1년에는 10만 명당 2.2명으로 전년대비 0.2명 감소함(보고서 103쪽)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2000~2021년) >

(단위: 명/10만 명)

연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1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14.4	12.5	9.5	7.1	5.9	4.8	4.2	2.9	2.8	2.4	2.4	2.2

주: 1)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14세 이하 안전사고 사망률 ÷ 14세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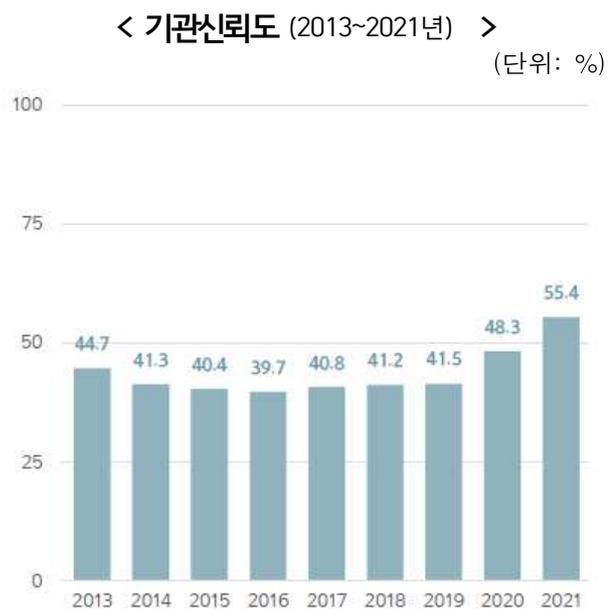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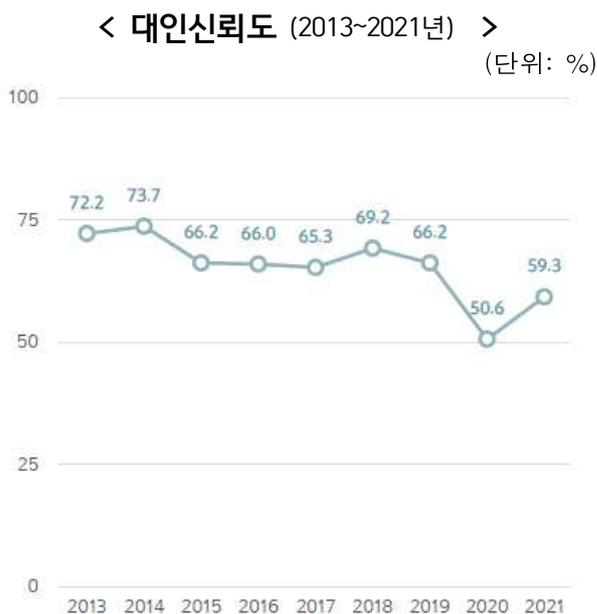
2) 안전사고: 운수사고, 추락, 익사, 질식, 화상, 중독 등 사망의 외인 중 자살과 타살을 제외한 사고사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주민등록연앙인구

## 사. 시민참여 영역

대인신뢰도는 '21년 59.3%로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음

- 대인신뢰도는 '21년 59.3%로 전년대비 8.7%p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낮은 수치임(보고서 116쪽)
  - 대인신뢰도는 '15~'19년까지 65% 내외에서 '20년에 50.6%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 '21년 59.3%로 증가하였지만 코로나19 이전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코로나19 시기 사람들간의 감염으로 인한 불안과 외부활동의 제한으로 인한 사람들과의 관계단절로 대인신뢰도가 감소
- 반면, 기관신뢰도는 '21년 55.4%로 '20년에 이어 증가추세임(보고서 111쪽)
  - 기관신뢰도는 '14~'19년까지 39~41% 정도였으나, '20년에 48.3%로 전년대비 6.8%p 증가하였고, '21년에도 55.4%로 전년대비 7.1%p 증가함
  - 16개 기관 중 의료계가 72.3%로 가장 높고, 국회(34.4%)가 가장 낮음
    - \* '21년 기관신뢰도 : 의료계(72.3%), 교육계(69.1%), 금융기관(66.2%), 지방자치단체(58.5%), 대기업(56.7%), 중앙정부부처(56.0%), 군대(56.1%), 경찰(55.3%), TV/방송사(55.3%), 종교계(54.2%), 시민단체(53.3%), 법원(51.3%), 검찰(50.1%), 신문사(50.1%) 노동조합(47.8%), 국회(34.4%)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19~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2) 대인신뢰도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해 '매우 믿을 수 있다' 또는 '약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  
 3) 기관신뢰도는 16개 기관에 대해 '매우 믿을 수 있다' 또는 '약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아. 주관적 웰빙 영역

삶의 만족도는 '21년(6.3점)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OECD 국가 중에서는 하위권임

- 삶의 만족도는 '21년 6.3점으로, '13년 5.7점에서 소폭으로 증가추세이며, '17년(6.0점) 이후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1년에 증가함(보고서 119쪽)
  - 삶의 만족도는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아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5.5점으로 평균보다 0.8점 낮음
    - \* 소득수준별 삶의 만족도 : 100만원 미만(5.5점), 100~200만 미만(6.0점), 200~300만 미만(6.1점), 300~400만 미만(6.3점), 400~500만 미만(6.3점), 500~600만 미만(6.5점), 600만 이상(6.5점)

### < 삶의 만족도 (2013~2021년) >

(단위: 점/10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삶의 만족도	5.7	5.7	5.8	5.9	6.0	6.1	6.0	6.0	6.3

주: 1)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지에 대한 0~10점 척도 응답의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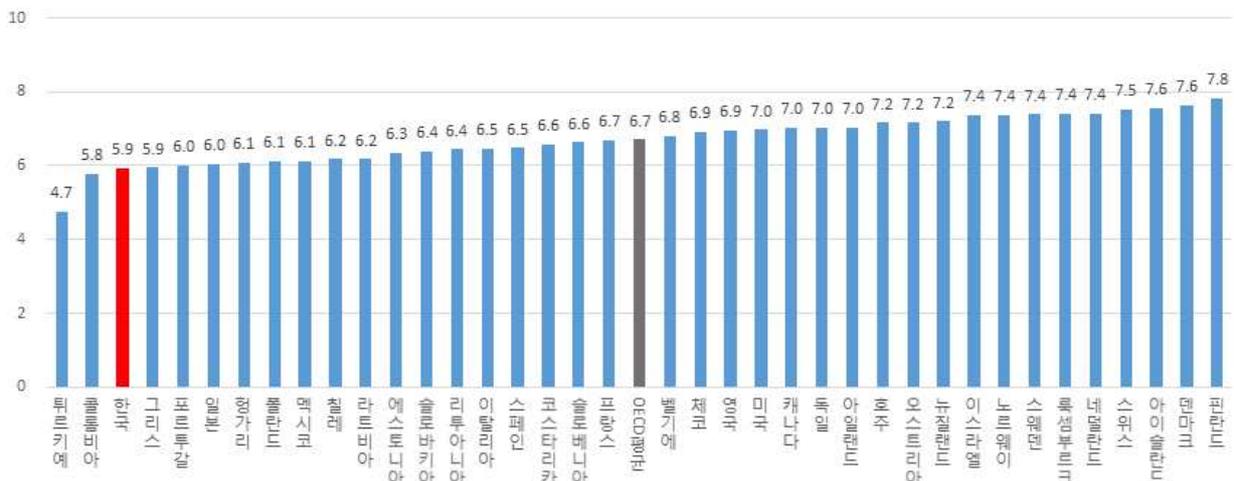
2)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만19~69세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국제비교로 보면,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5.9점('19~'21년 평균)으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으로 OECD 평균(6.7점)보다 0.8점 낮음(보고서 120쪽)
  - 우리나라는 일본(6.0점), 그리스(5.9점) 등과 비슷한 수준이며, 핀란드(7.8점), 덴마크(7.6점), 아이슬란드(7.6점) 등 북유럽 국가에서 높은 편임

### < OECD 국가 삶의 만족도 (2019~2021년) >

(단위: 점/10점)



주: 삶에 대한 평가(Cantril Ladder) 항목의 0~10점 척도 평균값(2019~2021년 평균)

출처: UN SDSN, World Happiness Report 2022.

영역 [점수/순위]	지표명	지표값		지표별 순위	기준 연도
		한국	OECD 평균		
주거 (Housing) [7.5/ 7위]	주거관련지출(Housing expenditure)	14.7%	20.5%	1/41	2019 ( '14-'19)
	기본시설이 있는 가구(Dwellings with basic facilities)	97.49%	97.0%	27/41	2015 ( '15-'20)
	개인당 방수(Number of rooms per person)	1.5개	1.7개	26/41	2015 ( '15-'20)
소득 (Income) [3.4/ 22위]	가계 순자산(Household net wealth)	362,340 USD	323,960 USD	13/41	2019 ( '14-'19)
	가계 순가처분소득(Household net adjusted disposable income)	24,590 USD	30,490 USD	27/41	2018 ( '17-'19)
직업 (Jobs) [7.8/ 19위]	직업안정성(Job security)	2.95%	5.1%	13/41	2016
	개인소득(Personal earnings)	41,960 USD	49,165 USD	19/41	2020
	고용률(Employment rate)	65.86%	66.0%	29/41	2020 ( '19-'20)
	장기 실업률(Long-term unemployment rate)	0.02%	1.3%	2/41	2020 ( '19-'20)
공동체(Community) [1.5/ 38위]	지원관계망의 질(Quality of Social network support)	80.0%	91.0%	38/41	2020 ( '19-'20)
교육 (Education) [7.8/ 11위]	기대교육기간(Expected years in education)	17.2년	18.0년	24/41	2017 ( '14-'17)
	학생들의 역량(Student skills)	520점	488점	2/41	2018
	교육 성취(Educational Attainment)	89.0%	79.0%	14/41	2020 ( '17-'20)
환경(Environment) [3.1/ 38위]	수질 만족도(Water quality)	82.0%	84.0%	24/41	2020 ( '19-'20)
	대기오염(Air pollution)	27.3micro-g	14.0 micro-g	40/41	'17-'19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7.8/ 2위]	규칙 제정에의 참여(Stakeholder engagement for developing regulations)	2.9 index	2.1 index	5/41	2017
	투표 참여율(Voter turn-out)	77.2%	69.0%	12/41	2017 ( '14-'21)
건강(Health) [4.8/ 37위]	자기보고 건강상태 (Self-reported health status)	33.7%	68.0%	41/41	2019 ( '06-'19)
	기대수명(Life expectancy)	83.3년 (82.4년)	81.0년	5/41	2019
삶의 만족도 (Life Satisfaction) [3.1/ 35위]	삶에 대한 만족도 (Life satisfaction)	5.8점	6.7점	35/41	2020 ( '19-'20)
안전(Security) [8.8/ 11위]	살인율(Homicide rates)	0.8명	2.6명	19/41	2019 ( '14-'19)
	야간보행 안전도(Feeling safe walking alone at night)	82.02%	74.0%	11/41	2020 ( '19-'20)
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 [3.8/ 35위]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Time devoted to leisure and personal care)	14.8시간	15.07 시간	25/41	2014 ( '15-'18)
	장시간 근로자(Employees working very long hours)	19.7%	10.2%	37/41	2020 ( '11-'20)

출처: OECD BLI 홈페이지(<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 2023년 1월 인출) 자료 재작성